

# IMF, 멕시코 '13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

(2013년 7월 9일)

멕시코시티사무소

## ① IMF, 멕시코 '13년 경제성장률 하향

### □ IMF, 멕시코의 '13년 경제성장률(GDP) 하향 발표('13. 7. 9)

- '13년 및 '14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.9% 및 3.2%로 하향 조정

	조정전	조정 후	비고
2013	3.4%	2.9%	△0.5%p
2014	3.4%	3.2%	△0.2%p

- 이는 최근 멕시코 정부가 '13년 경제성장률을 종전 3.5%에서 3.1%로 하향조정 것과 일맥상통
  - '13. 1분기 중 멕시코는 0.8%의 저성장 기록  
(공공부문 △2.9%, 건설 △2.3%, 제조 △1.6% 등)
- IMF는 구체적인 하향 조정사유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, 신용위기 계속, 미 연준의 출구전략 조기실시 등을 제시
  - 특히, 멕시코를 비롯한 여타 신흥시장(emerging market)은 투자자본의 선진국 이동에 따른 자본유출(capital flight) 위기에 새롭게 직면

## 2 시사점

- '13년 상반기 중 멕시코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, 멕시코 경제와 밀접한 미국 경제의 회복세 지연, 2012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폐소화 강세, 해외주민의 본국 송금액 감소 등으로 '13년 멕시코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어느 정도 이미 예견된 바임.
  
- 현시점에서 더 큰 문제는 '14년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도 낙관할 수 없다는 점임.
  
- 이러한 난관 타개를 위해 '12년 말 새롭게 출범한 멕시코 Nieto 정부는 멕시코 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증진을 위해 '13년 하반기 중 Pemex<sup>1)</sup> 개혁안이 포함된 에너지개혁법안 실행 및 국가인프라계획(Programa Nacional De Infraestructura) 등을 새롭게 발표할 예정
  
- 향후 미국경기의 회복정도 및 멕시코 주요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에 따라 '13년 하반기 멕시코 경제성장률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

붙임: IMF,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조정

---

1) 멕시코의 석유와 광산 개발을 담당하는 국영기업이자 동국 최대 기업으로 멕시코 정부 재정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.

(붙임)

## IMF,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조정

- IMF는 각 국가별 내수경기 부진,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낮은 성장세, Euro지역의 경기침체(recession) 등을 이유로 '13년 세계경제성장률도 3.1%로 하향조정

	<u>조정 전</u>	<u>조정 후</u>	<u>비고</u>
2013	3.3%	3.1%	△0.2%p
2014	4.0%	3.8%	△0.2%p

- 미국 등 기타 지역에 대한 '13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다음과 같음.

	<u>조정 전</u>	<u>조정 후</u>	<u>비고</u>
미 국	1.9%	1.7%	△0.2%p
Euro	0.8%	0.6%	△0.2%p
일 본	2.5%	2.1%	△0.4%p
중 국	8.1%	7.8%	△0.3%p

##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및 예상

**Figure 1. Global GDP Growth**  
(Percent; quarter over quarter, annualized)

